

박물관역사문화교실 ②4

2017. 7. 19.(수), 14:00~16:00

근현대 서양복식의 흐름

- 18~20세기 전반기를 중심으로 -

권 유 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과 교수



국립중앙박물관
National Museum of Korea

이 수업은 면학 분위기 조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 (1) 수업은 정시에 시작되오니 수업 5분 전까지 강의실(대강당) 입실을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
- (2) 수업 시작 이후에는 강의실 출입을 통제할 수 있습니다.
- (3) 강의 교재는 1인 1부만 배부합니다. 교재가 더 필요하신 분들은 누리집([홈페이지](#))
→교육→교육자료→강의 자료에서 교재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 (4) 수업 중에는 휴대폰을 꺼주시기 바랍니다.

박물관역사문화교실 ②4

근현대 서양복식의 흐름

- 18~20세기 전반기를 중심으로 -

발 행 국립중앙박물관

04383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137

교육문화교류단 교육과

TEL / (02)2077-9000

www.museum.go.kr

인 쇄 (주)계문사 / (02)725-5216

근현대 서양복식의 흐름

- 18~20세기 전반기를 중심으로 -

권 유 진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생활과학과 교수

18세기, 로코코 양식의 융성

유럽의 18세기 복식은 예술과 디자인에서 로코코Rococo 양식의 변성과 깊은 관련을 갖는다. 로코코 스타일은 장식미술과 인테리어 디자인을 중심으로 장엄함, 대칭, 엄격한 규정에 의해 지배받는 바로크 스타일에 대한 반작용으로 발생하였다. 바로크 스타일이 장엄하고 화려하며 과시적이고 정치적이었던 것에 비해, 로코코 스타일은 작고 복잡하게 장식된 화려함을 특징으로 가벼운 색채와 곡선을 사용한 유희적이고 자유롭고 즐거운 형식미를 보여주었다.

로코코의 어원은 프랑스어 로카유rocaille(작은 돌)와 코키유coquilles(조개껍데기)의 합성어에서 유래했다고 보기도 하고 이탈리아어 바로코barocco(일그러진 진주)와 프랑스어 로카유rocaille의 합성어에서 유래했다고 보기도 한다. 작은 돌이나 조개 껍데기는 정원이나 인테리어, 장식디자인의 모티프로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로코코를 후기 바로크 양식으로 보기도 하는 관점과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18세기 살롱은 프랑스 귀족과 부르주아, 특히 여성들에게 중요한 사교활동의 장이었다. 살롱에서는 문학과 철학, 예술 등에 관한 의견을 나누었다. 사교와 세련된 취향의 교육을 추구하고, 자유로운 토론과 대화에 가치를 두는 프랑스 문화의 모습을 살롱에서 찾아볼 수 있다. 파리는 이 시기 이미 서구세계 유행의 중심지였다.

17세기부터 판도라pandora라는 인형에 프랑스 궁정의 새로운 스타일의 옷을 입혀서 유럽의 다른 나라와 미국으로 보내어 유행이 전파되었다. 또한 18세기 후반에는 유행 스타일을 그린 도판인 패션 플레이트fashion plate가 실린 잡지를 통해 전파되었다. 한편 영국은 농업혁명과 식민지에서 얻은 잉여 자본과 노동력을 기반으로 면직물 산업에서부터 산업혁명을 일으켰다. 그 결과 면직물 생산이 산업화되며 질 좋은 면직물의 공급이 원활해지고 가격이 낮아짐에 따라 중류층도 상류층의 새로운 스타일을 모방할 수 있는 기반이 형성되었다.

여성복식의 전체적인 스타일은 17세기 후반 잠시 좁아졌던 실루엣이 다시 넓어졌다. 중형 스커트의 로브robe는 로코코 양식의 특성인 은은한 색조, 가벼운 소재에 잔잔하게 배열된 무늬, 여성스러운 장식인 프릴, 러플, 레이스, 리본, 꽃이 사용되었다. 프랑스의 로코코 스타일이 더 정교하고 색감이 풍부하며 장식이 풍부한 스타일이었던 반면에 영국의 로코코 스타일은 프랑스에 비해 단순하고 실용적이었다. 경제적이고 내구성이 좋은 직물로 만든 의복은 영국인의 실외 생활양식에 적합하였고, 프랑스의 스타일은 실내 생활 중심의 생활양식을 반영하였다.

로코코 스타일의 여성복식은 전반적으로 가는 허리와 풍성한 스커트가 강조된 X-실루엣이었다. 로브robe(가운이라고도 부름)는 소매, 보디스, 스커트고 구성된 긴 드레스로 앞중심이 여머지는 스타일과 여머지지 않아서 스테머커stomacher라는 가리개를 상체의 앞부분을 가리는 스타일이 있었다. 대개 스커트는 앞 중심이 벌어져서 아래 입은 스커트(언더스커트 또는 페티코트라고 부름)가 보인다. 스테머커와 페티코트는 레이스, 리본, 프릴로 화려하게 장식하였다. 로브의 소매 끝에 레이스나 러플을 층층이 만들어 다는 게 유행했는데, 이를 앙가장트engageante라고 불렀다. 로브의 모양을 잘 살리기 위하여 속옷인 슈미즈 위에 상체에는 허리 부분까지 길게 내려오는 코르셋corset(스테이즈stays라고도 부름)과 사방이나 엉덩이 양 옆으로 부풀리는 후프hoop나 파니에pamier(마구니라는 뜻)같은 부풀린 스커트 버팀대를 착용하였다. 대표적인 로브로는 로브 아 라 프랑세즈robe à la française와 로브 아 랑글레즈robe à l'anglaise가 있다. 로브 아 라 프랑세즈는 뒤중심 어깨에 박스 플리츠box pleats가 잡혀있고 앞이 여머지지 않은 형태이어서 앞은 스테머커를 로브 앞판의 양 옆에 구멍으로 코드를 이용하여 부착하였다. 로브 아 랑글레즈는 영국식 스타일의 로브로 보디스가 앞 중심에서 로브가 여머지며, 보디스는 꼭 맞고 스커트는 중형으로 풍성하게 퍼지는 실루엣이었다.

로코코시대의 남성복식은 17세기 말 스타일이 이어져 쥐스토코르(코트1)와 베스트(웨이스트코트), 켈로트(바지)의 3-피스가 기본 품목으로 구성되었다. 18세기 전반에는 둥근 네크라인으로 허리부터 플레어지는 실루엣이었다가, 중반 이후 소매와 보디스 품이 좁아지고 앞 중심에서 사선으로 재단된 날씬한 스타일이 자리를 잡았고, 1760년대부터는 프랑스 궁정의 공식복장인 아비 아 라 프랑세즈가 되었다. 영국에서는 실용적인 의상이 발달하며 모직으로 만든 코트인 프록frock 또는 frac이 대중화되었다. 프록은 넓은 칼라가 달렸고, 소매가 좁고 옆선이 사선으로 재단되었다. 프록은 1770년경부터 정장 차림에서 쥐스토코르를 대체하게 되었고, 프랑스 궁정의 공식복장이 되어 프락 아비에frac habillé라 불렸다. 켈로트 역시 초기에는 엉덩이 부분의 품이 넉넉했으나 중반이후 부터는 점차 몸에 맞는 스타일로 변화하며, 앞 중심과 무릎 옆쪽에서 단추로 고정하였고, 무릎에는 버클과 스트랩을 착용하기도 했다. 코트 속에 입은 흰색 슈미즈의 소매 끝의 레이스 장식이나 밴드가 보였고, 목 장식은 나비모양 없이 그냥 둘러서 한번 묶어 늘어뜨리는 스테인커크steinkirk에서 스톡stock으로 목을 감싸고 러플로 장식인 자보jabot로 앞트임을 가리는 스타일로 유행이 바뀌었다.

19세기부터 20세기 초, 격변의 근대 복식

18세기 후반으로 가면서 궁정과 귀족의 사치가 극에 달하고, 경제적 공황과 흉작은 평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사회적 부조리에 대한 불만을 가중시켰다. 이에 평등사회를 추구한 계몽주의자 루소의 영향을 받은 도시민과 농민은 혁명을 위한 무기를 탈취하기 위하여 1789년 바스티유감옥을 습격하면서 프랑스 대혁명을 일으켰다. 프랑스혁명으로 신분제에 의하여 의생활을 규제하는 복식규제법이 폐기되어 복식에서의 민주화가 법으로 보장되었다.

유행 양식의 변화 주기는 이전 시대에 비해 짧아져 19세기부터 20세기 초에 이르는 복식양식은 크게 신고전주의와 낭만주의, 크리놀린crinoline, 버슬, 아르누보 스타일 총 5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프랑스 혁명이 발발한 1789년부터 나폴레옹이 패망한

1) 서양복식사에서 코트란 현재 우리가 외래어로 사용하는 외투의 개념이 아니라 오히려 현재의 재킷 개념에 더 가깝다. 코트 위에 덧입는 옷은 대개 오버코트로 표기한다.

1815년까지의 기간에는 신고전주의 스타일이 지배적이었다. 1815년부터 2월 혁명이 발발한 1848년까지 왕정복고 시대의 프랑스 사회에는 낭만주의가 대두하였고 복식의 스타일에도 구현되었다. 예술에서의 낭만주의는 2월 혁명(1848) 이후에도 지속되었지만, 복식에서는 프랑스 제2공화정시대인 1850년대부터 1860년대 말까지 유행한 스타일을 구분하여 크리놀린이라고 불렀다. 버슬 스타일은 프랑스에서 제3공화정이 세워지며 크리놀린이 진화하여 1870년대에서 1880년대까지 유행하였다. 이후 파리를 중심으로 서구 유럽의 정치, 경제가 안정되고 과학기술과, 예술, 문화가 번성했던 벨 에포크 Belle Epoque²⁾에 접어들면서 아르누보 스타일이 유행하고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기 전까지 대체로 지속되었다.

여성 근대복식의 극적인 변화

신고전주의는 프랑스혁명 이전부터 유럽에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1738년 이탈리아의 폼페이에서 고대 로마 유적이 발견된 후, 고대 그리스와 로마에 관한 미술사학자 빙켈만Winckelmann의 책이 관심을 끌며 18세기 중반부터 19세기 전반까지 유럽의 예술을 지배하였다. 프랑스 시민혁명 역시 고대 그리스 민주주의에 영향을 받았고, 신고전주의는 그리스와 로마에 대한 선망은 복식을 비롯한 여러 예술 양식에서 그리스와 로마 양식이 부활했다. 프랑스혁명을 거치며 복식에서는 고대 그리스 양식처럼 자연스럽게 인체를 따라 흘러내리는 실루엣이 재현되었다. 초기에는 귀족풍과 시민풍 복식이 공존했지만, 점차 주류 패션은 그리스의 키톤의 모습을 본뜬 신고전주의 양식으로 변화하였다. 드레스의 허리선은 가슴 아래까지 올라간 하이 웨이스트라인이며, 속옷을 간소화하고 스커트는 버팀대 없이 부풀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흘러내리는 H-실루엣을 기본으로 하였다. 신고전주의 복식의 대표적인 스타일로는 혁명기(1792~1794)에 입기 시작한 단순하고 자연미가 돋보인 흰색 슈미즈 가운이 있다. 이는 산업혁명으로 생산하게 된 얇은 옷감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슈미즈 가운이 총재정부기(1795~1799)에 들어 일반화되었기 때문에, 총재정부directoire에서 이름을 따와서 디렉투아르 스타일이라고도 부른다. 디렉투아르 스타일은 나폴레옹이

2) 아름다운 시대이라는 의미로, 대개 1895년에서 1914년 사이의 기간을 벨 에포크로 봄

황제로 등극한 제1제정the First French Empire(1804~1815)에 접어들어 점차 화려하고 사치스럽게 변화하였다. 제1제정시대에 유행의 절정에 도달하여 하이웨이스트라인의 날씬한 실루엣의 가운을 엠포이어 스타일empire style이라 부르기도 한다.

1815년 워털루전쟁의 패배로 나폴레옹 제국이 끝나고, 프랑스는 구체제인 왕정체제로 돌아갔다. 산업발전에 따른 노동자와 자본가의 갈등이 팽배하고, 감성에 의존하고 새로운 형식과 자연적인 것을 강조한 낭만주의가 유럽과 미국을 지배하게 되었다. 복식에서 낭만주의는 신고전주의적 H-실루엣을 버리고 X-실루엣을 부활시켰다. 제자리로 내려온 허리선에 부드러운 곡선과 주름 장식, 과장된 부피의 소매와 스커트가 큰 특징이었다. 이는 전혀 새로운 스타일이라기보다는 낭만주의 경향이 융합되어 재해석된 왕정시대 스타일이라고 볼 수 있다. 낭만주의 스타일의 특징 중 하나는 소매 디자인이다. 소매가 커지면서 어깨 아래로 벗어나서 달리며 어깨가 드러나는 오프더숄더off-the-shoulder 스타일이 유행하였고, 소매 윗부분을 부풀린 양다리 모양의 레그오브머튼lef-of-mutton 소매, 마메루크 소매, 퍼프소매가 유행하였다.

1848년 2월 혁명으로 왕정이 해산되고 공화정이 선포되었다. 프랑스는 사회문화적으로 낭만주의가 더욱 발전하였고, 부르주아 복식문화는 귀족적인 화려함에 실용성을 결합한 크리놀린의 유행으로 변화하였다. 산업혁명으로 직물생산의 양적, 질적 향상이 이루어졌고, 기성복을 팔고 최초의 현대적인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파리의 봉마르세Le Bon Marché는 부르주아 소비자들에게 큰 인기를 얻었다. 크리놀린 시대는 인명人名있는 패션의 역사가 시작된 시기이다. 찰스 프레데릭 워스Charles Frederik Worth는 나폴레옹 3세의 유제니 황후의 옷을 디자인하고, 화가가 미술작품에 서명을 남기듯 자신이 디자인한 옷에 자신의 이름을 라벨로 만들어 부착하였다. 워스의 이와 같은 대담한 행보는 의복이 이름 없는 기술자가 만드는 소비재가 아닌 디자이너가 창조한 작품으로서 패션 디자인의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하였다.

크리놀린은 스커트를 부풀려 주는 속치마를 지칭하였으나, 코르셋으로 가늘게 강조한 가는 허리에 바닥에 끌릴 정도로 길고 역사상 가장 넓은 치마가 만드는 로브 스타일의 통칭하게 되었다. 낭만주의 시대 원뿔형 스커트 실루엣에서 크리놀린 시대 중형 실루엣으로 변화하였다. 스커트 부피가 커지면서 고래뼈나 철사를 후프형태로 만들어서 페티코트에 고정시켜서 스커트가 지나치게 무거워지지 않도록 만들었다. 크리놀린은 넓은 중형에서 앞은 납작하고 뒤가 더욱 넓어지는

모양으로 변화하였다. 보디스 즉 몸판은 앞 허리 중심이 뾰족하게 길어져서 가는 허리를 강조했고, 어깨선이 내려와서 소매가 달리는 드롭트 숄더dropped shoulder가 유행했으며, 소매의 윗부분의 부풀림은 없어졌다. 특히 아래로 갈수록 플레어지며 여러 층의 레이스나 리플을 이어 만든 파고다pagoda소매가 유행하였다.

스커트의 앞이 납작하고 뒤로 둥글게 확장된 집중되던 크리놀린은 1870년대부터 점차 좌우는 날씬하고 뒷부분만 집중적으로 확장된 버슬스타일이 완성되어 1880년대까지 유행하였다. 버슬 스타일은 속치마의 엉덩이 부분에 패드를 넣거나 골조를 넣어서 부풀려서 형태를 만들었다. 초기에는 치마에 트레인이 달려서 스커트 뒷자락이 늘어지는 스타일이었으며, 외출 시 트레인을 끌어올려 엉덩이 뒷부분에 고정하여 뒤를 더욱 돌출시켰다.

1890년대 들어서 건축이나 가구, 텍스타일, 인테리어, 그래픽디자인 같은 장식미술을 중심으로 아르누보Art Nouveau 양식이 유행하면서, 여성복식도 유기적인 곡선의 강조하는 스타일로 변화하였다. 1890년대와 1900년대의 가운은 긴 코르셋으로 가슴을 둥글게 돌출시키고 허리는 매우 가늘게 조이고, 치마는 폭을 나누어 엉덩이부분은 잘 맞고 밑단부분에서 퍼지도록 만든 고어드 스커트gored skirt를 입었다. 이를 복식에서 아르누보 스타일이라고 부르는데, 옆에서 봤을 때는 S자 곡선으로 보이기도하고, 앞에서 보면 아워글라스hourglass실루엣으로 보인다. 1890년대에는 어깨가 강조된 레그오브머튼 슬리브가 유행하여 아워 글라스 실루엣에 가까웠으나, 1900년대로 들어서면서, 어깨의 부피감이 줄어들어 따라 상체에서 하체로 유연하게 흐르는 S자형 곡선이 더 부각되는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여성들의 사회진출이 늘어남에 따라, 남성의 셔츠와 유사한 셔츠웨이스트에 단순한 스커트를 입거나, 남성복의 영향을 받아 기능적인 투피스형 복식을 많이 입었다.

남성 근대복식: 현대 복식으로의 본격적인 이행

프랑스 혁명이후의 사회변화는 남녀복식에 많은 변화를 야기했지만, 여성복식이 신고전주의 스타일에서 낭만주의, 크리놀린, 버슬, 아르누보 스타일로 사회체제와 예술양식, 정신사조를 직접적으로 반영하며 급격한 변화를 보여준 것에 비해 남성복식의 변화는 완만했다. 쓰리피스 슈트 기본 구성으로, 포멀formal(예장용 정장),

인포멀informal(평상용 정장), 캐주얼casual로 구분하는 격식성을 준수하는 기본 패턴이 유지되고, 슈미츠와 베스트를 제외하고는 주로 검정색과 짙은 색의 의복을 착용하였다. 더 이상 남성들은 화려한 치장을 하지 않는 남성 근대복식 문화를 심리학자 플루겔Flügel은 “위대한 남성성의 포기the great male renunciation”라고 불렀다. 이는 꾸미기와 아름다움에 대한 권리 포기를 의미하며 남성복식사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다.

혁명시대 남성복은 프락, 웨이스트코트, 켈로트로 구성된 귀족풍 옷차림과 귀족의 전유물이었던 켈로트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상 켈로트sans-culotte라 부르는 시민풍 복식이 혼재되었다. 상 켈로트는 헐렁한 칠부 길이의 바지인 판탈롱에 엉덩이를 덮는 헐렁한 재킷인 카르마놀carmagnole을 입고 스펜서나 르댕고트를 걸친 모습이었다. 집정시대(1799~1915) 이후로 이 둘이 혼합된 근대 복식 스타일이 형성되었고, 테일러링 기술이 발달에 힘입어 남성복에서 인체를 재현하는 능력이 향상되었다.

포멀웨어formal wear는 결혼식, 공식적인 연회 같은 사교모임을 위한 예장용 복장으로 최고로 격식을 갖추는 것을 의미한다. 19세기에 들어서 야간용과 주간용 정장의 명확한 구분이 생기고, 이 두 가지가 포멀웨어의 기본을 이루게 되었다. 최고로 격식을 갖춘 이브닝 포멀웨어인 데가제dégagé는 이전 시대 르댕고트처럼 높은 칼라와 라펠이 달렸고, 허리아래부분인 스커트의 앞은 짧고, 허리는 들어가고, 뒷 스커트는 약간 플레어지는 코트이다. 앞이 짧고 뒤가 길어서 데가제는 영어로는 테일코트tail coat라고 부르게 되었다. 코트 안에 칼라와 라펠이 달린 베스트를 입고 하의는 위사르hussarde를 입다. 위사르는 영어의 트라우저trouser에 해당된다. 베스트 안에는 흰색 스탠딩 칼라의 셔츠를 입었고 크라밧cravat을 맺다.

1815년 나폴레옹이 패망하고 낭만주의가 팽배하게 되며 여성복식에서 부활한 X-실루엣이 남성복에도 나타났다. 코트에 레그오브머튼 소매가 달렸고, 코트의 허리는 가늘고 스커트는 플레어져서 이전 시대에 비해 X자 형태로 바뀌었다. 1848년 2월 혁명을 거치며, 남성복에서는 H-실루엣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향을 보여서 테일코트의 소매를 부풀리지 않고 스커트는 날씬하게 떨어졌다. 넥타이는 크라밧 대신 좁고 뾰뚱한 보타이bow tie를 착용하기 시작했다.

1880년대부터는 이브닝 포멀웨어로 테일코트와 함께 저녁 연회에 입을 수 있지만 테일코트보다 다소 편안한 준정장인 턱시도tuxedo를 착용하기 시작했다. 턱시도 안에는 베스트 대신 넓은 허리밴드 같은 커머번드cummerbund를 착용하기도 했다.

셔츠의 칼라는 스탠딩 칼라가 이전부터 착용되어왔으나, 1900년 전후로 정장용으로 셔츠의 칼라가 코너가 접힌 턴오버나 윙칼라 형태로 변화하였다. 정장용 베스트는 네크라인이 깊게 파이고 솔칼라가 달린 흰색을 착용했다. 테일코트와 텍시도는 20세기까지 포멀웨어로 착용해오고 있다.

무릎까지 내려오는 프록은 19세기에 들어서 주간용 코트로 착용하게 되었는데, 허리선을 절개하고 플레어지는 스커트가 특징인 코트였다. 1850년대에는 데가제와 마찬가지로 좀 더 X-실루엣을 보였다. 보수적인 사람들은 데가제를 주간용 포멀웨어로 착용하기도 했다. 1880년대부터는 프록의 길이가 짧아지면서 허리선에 솔기는 있지만 앞 중심에서 곡선으로 비스듬히 재단된 형태로 변했고, 이는 앞 중심이 똑바로 떨어지는 프록과 구분하여 모닝코트 또는 컷어웨이cutaway라고도 불렀다.

여성복에서 크리놀린 스타일이 등장한 1850년대에 접어들며, 테일코트나 프록과 대조적으로 허리가 많이 들어가지 않고 작은 칼라와 라펠일 달린 새로운 스타일의 색코트sack coat가 등장했다. 색슈트는 코트와 베스트, 트라우저를 같은 소재로 제작하는 경우가 많았다. 1870년대 이후 기성복이 확대되며, 색코트는 대중적인 기성복으로 많이 판매되었다. 1890년에는 색코트의 라펠이 커지고 허리가 약간 들어간 스타일이 유행했고, 일상적인 외출과 직장에서 착용하는 일상용 정장으로 색슈트가 자리 잡았다. 넥타이는 1900년 전후에 오늘날과 같은 넥타이 형태인 포인핸드four-in-hand가 유행하였고, 점차 칼라가 없는 베스트를 착용하기 시작했다. 색슈트는 현대의 신사복 즉 비즈니스 슈트의 근간이 되었다. 기성복의 보급과 함께 트라우저의 중심이 일자로 주름을 잡은 크리스crease가 유행하였다.

20세기 전반기, 여성복식의 현대화와 테일러링의 시대

현대화의 시작, 플레퍼 스타일과 엘레강스 룩

20세기 초 서구사회는 경제적 번영과 정치적 평화, 문화와 예술, 기술의 혁신이 만들어 낸 윤택하고 평화롭던 시절이었다. 하지만 이 낙관주의와 삶의 기쁨으로 충만했던 시기는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끝이 나고 전쟁과 정치 이데올로기의

시대가 열렸다. 현대 미술운동의 전조가 되는 큐비즘이 발달하였고 이후 다다이즘, 미래주의, 구성주의 등 다양한 아방가르드 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1910년대를 거치며 여성복에서도 서서히 현대화가 시작되어 과장된 S자형 실루엣은 없어지고 스커트는 짧아지고 좁아지고 자연스럽고 똑바른 실루엣으로 바뀌었다. 1910년대 푸아레 Poire는 강렬한 이국풍에 열광하던 유럽인들에게 미너렛 minaret 튜닉, 하렘팬츠 harem pants, 터번, 술, 깃털 등과 같은 근동 아시아적인 요소를 사용하여 강렬하고 극적인 디자인인 오리엔탈 룩을 발표했다. 제1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여성의 스커트는 활동이 편하도록 바닥으로부터 4인치까지 올라갈 정도로 짧아졌다.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은 남성복의 영향을 받아 좀 더 짧아진 재킷과 플레어스커트를 착용했다.

1918년 전쟁이 끝나고 유럽 국가들은 재정립되었다. 세계 경제는 파괴되었지만, 1920년대로 접어들면서, 패전국인 독일을 제외하고는 경제적 호황기가 찾아왔다. 미국에서는 이 시대를 재즈시대, 유럽에서는 황금시대 20년대라고 불렀다. 자동차, 전화, 전기의 보급이 확대되었고, 레저 활동이 늘어나고 빠른 리듬의 재즈 음악과 찰스턴 댄스에 열광하는 사교문화가 발달했다. 1919년 설립된 바우하우스는 디자인의 기능주의를 열었다. 장식미술에서는 1910년대 아르누보가 쇠퇴기를 겪으며 아르데코가 등장하여 1920년대 절정을 이루며 제2차 세계대전 직전까지 지속되었다.

1920년대 여성복식은 플레퍼 스타일로 요약되며 매우 급진적인 변화를 겪었다. 플레퍼는 독립적이고 자유분방한 젊은 여성을 지칭한다. 플레퍼들은 진한 화장에 단발머리를 하고 공공장소에서 술, 담배를 필만큼 전통적인 여성상과는 대조를 이루었다. 플레퍼 스타일은 키가 크고 마른 어리고 소년 같은 이미지를 이상적인 모습으로 추구하여, 전체적으로 마르고 납작한 H-실루엣이었다. 플레퍼 스타일은 코르셋을 벗어버리고, 무릎 아래 다리가 드러나며 소매가 없고 어깨 끈이 달리며 허리가 들어나지 않는 편안한 로웨이스트 드레스가 많았다.

패션에서의 기능주의를 실현한 샤넬 Chanel 역시 코르셋 없이 인체를 구속하지 않은 직선형 실루엣을 사용했다. 샤넬은 남성 속옷에 주로 사용하던 편성물의 일종인 저지 jersey나 남성용 스포츠웨어에서 사용하는 트위드 tweed, 작업복에서 차용해온 세일러 블라우스, 패치 포켓을 여성복에 도입했다. 또한 1926년에 처음 발표한 리틀 블랙 드레스는 산업혁명 이후 남성복의 전유물인 검정을 여성의 평상복에 도입하여, 다용도로 착용이 가능하고 단순하고 기능주의적인 검정 드레스를 지칭하는

리틀 블랙 드레스라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냈다.

1930년대는 미국의 대공황과 함께 세계적인 경제 불황과 불안정한 정치 상황을 겪었다. 불황기에 대중의 여가생활은 극장이 중심이 되었고, 미국의 영화산업은 황금기를 누릴 수 있었다. 1930년대는 산업 디자인에서의 모더니즘을 구현한 형태라고 할 수 있는 유선형 디자인을 추구하였고, 복식 디자인은 롱앤슬림(long and slim) 실루엣을 추구하였다. 좀 더 전통적인 여성의 모습을 표현하는 디자인으로 회귀하여, 가슴과 허리 실루엣을 다시 드러내고 스커트는 길고 유연하게 흐르는 스타일이었다. 영화배우는 대중이 선망하는 스타가 되었고, 파리의 최신 유행 스타일보다 대중은 영화 속 여배우들의 의상에 더 열광했고 할리우드는 스타 시스템을 통해 화려하고 매력적인 글래머를 양산했다. 할리우드 글래머는 전통적인 여성미와 관능미가 합쳐진 아름다움을 뜻하며 롱앤슬림 스타일은 그 이미지를 만드는데 일조했다.

한편 불황의 시대는 싸고 질 좋은 대량생산 제품에 대한 요구를 증가시켰고, 미국을 중심으로 단순한 디자인의 기성복 산업이 성장하였다. 격식에 매이지 않고 상의와 하의를 개별적으로 교체해서 입는 실용적인 세퍼레이츠가 확대되며, 지나치게 격식을 갖춘 것도 아니고 지나치게 캐주얼하지도 않은 다목적의 세퍼레이츠 룩인 아메리칸 스포츠웨어(American sportswear)의 개념이 정착되었다. 전반적으로 색채와 디자인을 차분하고 단순하고 유행을 많이 타지 않는 디자인을 선호하게 만들었다. 원피스 드레스나 투피스의 일상복에도 롱앤슬림 실루엣이 반영되어 스커트는 종아리 중간까지 길어졌고 고어나 바이어스 재단, 요크를 이용하여 엉덩이부터 허벅지까지 윤곽이 드러나고 아래는 플레어지며 날씬하게 흐르는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라우스, 재킷, 스커트로 구성된 여성의 테일러 슈트는 사회적으로 성공한 여성들의 옷차림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과 뉴룩

1920년대부터 서서히 싹트기 시작한 파시즘은 유럽과 아시아 대륙에 갈등과 분쟁을 일으켰고, 1939년부터 1945년까지 전 세계는 역사상 가장 큰 전면전인 제2차 세계대전의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군수물자의 조달과 생산으로 원자재가 부족해지자 영국이나 미국 등의 참전국들은 군수물자와 관련 있는 모든 원자재의 사용과 생산을 통제했고, 옷은 물론 다양한 소비재의 수급을 관리했다. 영국의 전시 자원과 소비

배급에 관한 규제를 유틸리티 제도Utility Scheme이라고 불렀는데, 이를 준수하여 생산한 옷을 유틸리티 의복Utility clothing이라고 불렀다. 이러한 규제는 대개 스타일당 옷감의 소요량을 규제하고, 옷감이 많이 요구되는 디자인(예. 턴 백 커프스나 여러 개의 패치 포켓)을 금지했고, 군수품에 사용되는 모직물, 견직물, 가죽의 사용은 엄격히 제한되었다. 반면에 군수물자에 사용되지 않는 면이나 레이온, 벨벳, 태피터는 스포츠웨어와 이브닝웨어에 사용하였다.

전시 중 유행 스타일의 변화는 전쟁의 영향이라기보다는 1930년대 말부터 진행된 트렌드의 변화 때문이었다. 1930년대의 흐르는 듯한 실루엣은 후반으로 갈수록 어깨선은 직선적으로 각이 지고 넓어지기 시작했고, 스커트는 좁아지고 짧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전쟁과 유틸리티 제도 같은 규제가 부정적인 측면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유틸리티 제도는 대중을 위한 옷이나 가구 같은 소비재의 기준을 제공하고 이에 부합하며 합리적인 가격대에서 생산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직물은 면적당 무게와 섬유조성의 최저 품질수준과 최대 판매가를 규정하였고 의복생산의 표준화를 추구했다. 여성들도 다양한 분야에 진출하게 되어, 실용적이고 활동적인 의복에 대한 수요가 더욱 증가했다. 또한 여성들 사이에서 전개된 직접 수선해서 재활용하는 “만들고 수선하라Make Do and Mend” 캠페인 전개를 통해 전시 중에도 여전히 스타일을 포기하지 않고 창의적으로 의생활을 영유했음을 알 수 있다. 또 전쟁은 미국이 프랑스 쿠티르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유행을 창출하는 주체가 되는 계기를 열었다. 클레어 매카텔Claire McCardell은 1940년 남성 셔츠에서 착안한 셔츠 드레스³⁾를 만들어 큰 인기를 얻었다.

1945년 종전과 함께 국제사회는 미국과 소련을 중심으로 민주주의와 공산주의가 대결하는 냉전시대가 열렸다. 1950년대 말에는 거의 모든 미국 가정에 텔레비전이 보급되어 텔레비전의 황금시대가 펼쳐졌다. 1950년대 대중문화에 텔레비전의 영향력은 지대했고, 텔레비전은 일반 대중의 의식주 모든 영역에 영향을 끼쳤다.

전쟁에서 돌아온 남성들의 경제활동 복귀는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여성상을 이상적인 모습으로 그렸고, 여성들 또한 전쟁에 의해 억제되어 있던 화려하고 풍요로운 미감이 부활하며 유행 스타일은 극적으로 변화하였다. 크리스티앙 디오르Christian Dior는

3) 셔츠웨이스트 드레스라고도 부름

1947년 아워글래스 실루엣의 뉴룩(New Look)을 발표했는데 폭발적인 인기를 얻으며 50년대까지 유행을 지배했다. 뉴룩은 어깨는 경사지고 둥글고, 가슴은 풍성하고 허리는 잘록하며, 스커트는 중형으로 매우 풍성하고 길이가 길어졌다.

1950년대에는 디오르와 디오르 하우스를 이어받은 이브 생 로랑Yves Saint Larent, 발렌시아가Balenciaga, 피에르 발맹Pierre Balmain, 지방시Givency 등이 쿠틀르의 황금시대를 이끌었다. 발맹의 줄리 마담 드레스, 발렌시아가의 세미 피티드 슈트, 샤넬의 카디건 슈트, 디오르의 H라인, Y라인, A라인과 생 로랑이 디자인한 디오르의 트라페즈 컬렉션, 지방시의 색드레스까지 다양한 디자인이 발표되었다.

남성 슈트의 진화

19세기에 형성된 현대복식의 체계는 기본적으로 유지되었다. 격식성의 정도에 따라 포멀웨어로는 길이가 긴 코트에 흰색 웨이스트코트와 트라우저로 구성된 쓰리피스틀, 평상용 정장으로는 모닝코트나 테일코트에 비해 길이가 짧은 코트에 웨이스트코트와 트라우저로 구성된 쓰리피스틀 착용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캐주얼웨어의 품목들이 증가하였다. 20세기 전반기 남성복의 흐름은 시대에 따른 슈트의 맞춤새와 디테일 변화를 중심으로 간단히 살펴본다.

1910년대와 1920년대의 포멀웨어에는 대개 보타이를 매고 톱헤트를 착용했으며, 평상용 정장에는 포인핸드를 매고 홈버그homburg나 볼러, 페도라를 썼다. 1910년대 라운지 슈트는 전체적으로 품이 좁아지고 어깨패드를 넣지 않고 자연스러운 어깨선에 허리선은 높았다. 바지 길이는 짧고 커프스를 만들었고, 크리스를 잡았다. 1920년대 중반부터는 허리선이 제자리로 돌아오고 피크트 라펠, 클로버잎 라펠 같이 라펠이 넓어지고 모양도 다양해졌으며, 더블 브레스트 재킷이 인기를 얻었다. 영국의 윈저 공(에드워드 8세)은 1920년대와 1930년대 남성복의 트렌드세터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한 스포츠 활동 장소에서 플러스 포나 셔츠에 넥타이를 매고 폴오버나 조끼를 입은 차림 등의 아메리칸 스포츠룩으로 대중의 관심을 끌었다. 윈저 공은 넉넉한 바지나 안감 없이 만든 편안한 스포츠 재킷 등 개성이 강한 스타일로 트렌드를 선도했다.

1930년대 경기 불황으로 슈트의 톤은 차분해졌지만, 남성복의 중심이었던 영국 런던의 새빌로Saville Row의 테일러 프레더릭 솔티가 주창한 드레이프 컷drape cut

(런던 컷, 블레이드 컷으로도 부름) 슈트에 헐리우드 스타를 비롯해서 전 세계가 열광했다. 테일러링의 혁신을 이룬 드레이프 컷은 전체적으로 어깨는 넓고 허리가 꼭 맞는 V자형 맞음새를 만들어 남성의 인체를 돋보이게 하는 스타일이었다. 제2차 세계대전 중에는 영국식 드레이프 컷이 유지되었고, 전쟁의 영향으로 제복을 입거나 제복과 유사한 스타일을 만들어 입기도 했다.

전쟁이 종료되고 남성복에 대한 직물 사용 제한 규제가 풀리며 여성복처럼 옷감을 많이 사용하는 스타일이 유행하였다. 이 스타일은 드레이프 컷보다 허리가 덜 들어가고 어깨에는 패드를 넣어 엉덩이 부분으로 떨어지는 선이 전반적으로 더 직선적이어서 볼드 룩Bold look이라고 불렸다. 전쟁으로 테일러링의 중심지 새빌로는 타격을 크게 입었고, 드레이프 컷은 서서히 역사 속으로 사라져갔다. 1950년대에는 좁은 라펠, 좁은 실루엣의 진회색 싱글브레스트 재킷이 인기를 얻었는데, 그레고리팩이 주연한 영화 「회색 플란넬 슈트의 남자」와 동명 소설에서 보듯이 회색 플란넬 슈트는 1950년대 비즈니스맨의 표준 복장이었다.

1950년대 후반부터는 가벼운 소재로 만든 슈트에 어깨 패드가 가볍게 들어가면서 어깨가 넓고 다트로 허리를 꼭 맞게 재단하였다. 라펠이 좁아지고 앞자락이 비스듬히 잘려나간 컷어웨이 스타일의 재킷길이가 짧은 싱글 브레스트 2-버튼 재킷과 통이 좁아진 트라우저를 입었는데, 이를 콘티넨탈 슈트continental suit로 불렀다. 콘티넨탈 스타일은 영국식 테일러링과 비교하여 가볍고 날씬하며, 이탈리아의 테일러들이 부각되며 이탈리아 스타일Italian style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초반 사이에 큰 인기를 얻었다.

한편 1950년대 후반부터 1960년대 중반까지 유행하던 또 하나의 슈트 스타일은 아이비리그 컷이었다. 아이비리그 스타일은 영국과 미국의 상류층의 골프, 폴로, 럭비, 테니스 같은 스포츠활동을 위한 옷으로 20세기 초반부터 착용하였으나, 1950년대 후반에는 특히 하버드나 예일대생들이 입는 슈트 스타일을 아이비리그 컷이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아이비리그 컷은 어깨가 자연스럽고 라펠은 좁으며 다트가 없어서 허리가 들어가지 않는 플랩 포켓이 달린 튜브형 싱글 브레스트 재킷과 다소 통이 넓고 커프스가 없는 바지를 같이 입는 스타일이었다. 3-버튼 재킷이지만 아래 두 개 단추만 잠그고 맨 위 단추는 잠그지 않고 라펠을 길게 접어서 입는 스타일로 버튼다운 셔츠와 포인핸드와 함께 착용했다.

【 참고문헌 】

- 금기숙 · 김민자 · 김영인 · 김윤희 · 유혜영 · 신혜순 · 최해주 · 배천범 · 박민여 · 박명희.
현대 패션 100년: 1900~2000. 서울: 교문사, 2002.
- 김민자 · 권유진 · 송수원 · 이예영 · 최경희 · 이진민 · 이민선. 패션 디자이너와 패션
아이콘. 파주: 교문사, 2014.
- 김민자 · 최현숙 · 김윤희 · 하지수 · 최수현 · 고현진. 서양패션 멀티 콘텐츠. 파주:
교문사, 2010.
- 이예영 · 권유진. 서양복식문화.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문화원, 2016.
- 이재정 · 박신미. 패션, 문화를 말하다: 패션으로 20세기 문화 읽기. 서울: 예경, 2011.
- 정홍숙. 서양복식문화사(개정판). 교문사, 1997.
- Boucher, François. *20,000 Years of Fashion: The History of Costume and Personal
Adornment*. New York: Harry N. Abrams, Inc. Publishers, 1987.
- Bourke, J.(1996). The Great Male Renunciation: The Men's Dress Reform Party in
Interwar Britain, *Journal of Design History*, 9(1), 23-33.
- Farrell-Beck, J. and J. Parsons. *20th-Century Dress in the United States*. London: Fairchild
Books, 2007.
- Hills, D. D. *Fashion: From Victoria to the New Millennium*. New Jersey: Pearson, 2012.
- Hill, D. D. *History of World Costume and Fashion*. Upper Saddle River, NJ: Prentice
Hall, 2011.
- Mackrell, A. *Art and Fashion*. London: Batsford, 2005.
- Payne, B., Winakor, G. and Farre-Beck, J. *The History of Costume: From Ancient
Mesopotamia Through the Twentieth Century*(2nd ed.). New York: Harper Collins
Publishers Inc, 1992.
- Rebeiro, A. *The Gallery of Fashion*. Princeton, NJ: Princeton University Press, 2000.

N o t e

N o t e

Note

【 2017년 박물관역사문화교실 】

- 운영 기간: 2017. 1. 25.(수)~12. 6.(수). 매주 수요일
- 운영 시간: 오후 2시~4시
- 장 소: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
- 강의 일정 및 주제

회차	일자	강의 제목	강사	비고
24	7. 19.	근현대 서양복식의 흐름 - 18~20세기 전반기를 중심으로	권유진(한국방송통신대학교)	프랑스 근현대 복식. 단추로 풀다. (5. 30~8. 15.)
※ 교육시설 휴지기 등으로 인한 휴강입니다.				
25	9. 13.	왕의 옷과 나라의 위상	이종서(울산대학교)	
26	9. 20.	18세기 독일과 이탈리아의 예술 교류	김정락(한국방송통신대학교)	독일 드레스덴박물관 연합 명품전 (9. 19~11. 12.)
27	9. 27.	동아시아 고대 철기문화의 형성과 전개	이남규(한신대학교)	쇠, 철, 강- 철의 문화사 (9. 26~11. 26.)
28	10. 11.	조선의 목가구	황지현(국립고궁박물관)	
29	10. 18.	한국 복식의 국제성	채금석(숙명여자대학교)	
30	10. 25.	‘열하일기’를 보는 두 가지 시각	김철조(영남대학교)	
31	11. 1.	한국 석조미술 이해하기	양희정(국립중앙박물관)	
32	11. 8.	한국의 기록화, 계획도	윤진영(한국학중앙연구원)	
33	11. 15.	조선의 名醫들	김호(경인교육대학교)	
34	11. 22.	대동법의 남자	최태성(EBS 역사 강사)	
35	11. 29.	한국 근대 미술의 역정	홍선표(이화여자대학교)	
36	12. 6.	세계유산의 이해	이창환(상지영서대학교)	

※상기 강의 일정은 강사의 상황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